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

- Social Convoy Model을 토대로 -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Structure and Function*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대학원 장영서
교수 현온강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
Graduate School : Young Seo, Jang
Prof. : On Kang, Hyun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social convoy model(Kahn and Antonucci, 1980).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656 elementary school children(2nd and 5th grade) and the middle school children(2nd grade) in rural and urban area.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es were frequencie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Two-way ANOVA, and correlation coefficient.

Children received more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in convoy function of social support. Convoy size of social support increased with age. Rural children had larger convoy size in the inner circle, and smaller convoy size in the middle circle than urban children di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동은 가족

과 주위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성장해간다. 생의 초기는 가족과의 관계가 아동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전부이지만 차츰 성장함에 따라 그 범위는 친척, 또래, 이웃 등으로 확대되어 간다. 선행연구들(김명숙, 1994; 한종혜,

* 본 연구는 1997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음.

1996)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적응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주위사람들로부터 많이 제공받는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덜 발생한다(김명숙, 1994). 또한 지지적인 관계(supportive relationship)는 성인기에 이르러도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Cohen & Wills, 1985).

사회조직망을 통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지원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모든 사회적 지원이 어느 한 성원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조직망은 발달 과정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한다. 아동기에는 부모나 형제 또는 친척의 지지를 많이 받으며, 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부모나 가족의 지지는 줄어들고 대신 또래나 그 밖의 타인의 지지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부모나 가족의 지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나 가족의 지지는 일생동안 필요하며,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단계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지지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그 척도에 있어서 학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개념 정의와 척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동안의 사회적 관계망 안의 관계들의 변화, 즉 사회적 지지의 변화와 일관성을 보여주는 'social convoy model' (Kahn & Antonucci, 1980)을 기초로 연구를 행하였다.

또한 사회조직망은 사회계층과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 문화적 계층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김수민, 1988). 농촌과 도시 아동의 가족구조와 환경의 차이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의 아동은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도시 아동보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농촌, 도시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갖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속

에서도 어떤 일관성을 갖는지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배경변수(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어떠한가?
2.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관계범주(부모, 형제/친척, 친구, 이웃)에 따라 어떠한가?
3.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배경변수(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어떠한가?
4.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관계범주(부모, 형제/친척, 친구, 이웃)에 따라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 이후부터 점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발달과 사회화 과정 및 그들의 건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독립적인 연구분야가 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이론, 연구,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 점차 그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Nestmann & Hurrelmann, 1994).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대개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이고, 사랑을 받고, 가치있는 존재이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Cobb, 1976). 즉,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은 발달과정을 통해 부모, 형제, 친척, 선생님, 친구, 애인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각기 다른 지지를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아동이 관계를 맺는 사람과 그들의 지지가

아동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러 관계유형들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연구해왔다(Hunter, 1985; Hunter & Youniss, 1982; Lewis, Feiring, & Kotsonis, 1984). 그러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적 생활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망과 관계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Bronfenbrenner, 1979; Lewis & Feiring,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부모, 형제/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는 방법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Cohen & Wills, 1985).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김명숙, 1994). 관계망의 크기란 개인이 잘 알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여기고 정규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언급하는데, 사회관계망의 구조는 특정한 사회적 세대내의 개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회적 지도(social map)의 역할을 한다(Feiring & Coates, 1987).

성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모든 지식은 일생동안 그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인간은 지지의 이용방법과 지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주로 관계망에 포함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도구적 지원기능(support function)으로 기록된다(Cochran & Brassard, 1979). 즉,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사회적 지수로 삼는 경우이다(김명숙, 199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은 개념적으로도 다르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에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convoy' 모델의 개념

'convoy'라는 용어는 David Plath의 일본인에 대한 인류학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Plath는 개인이 사회속에서 어떤 집단에 둘러싸여 있게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개인의 일생을 통해 그 개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을 'convoy'라 하였다(Akiyama & Antonucci, 1990). Kahn과 Antonucci는 Plath의 'convoy' 개념을 받아들여 개인의 전생애를 통한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일생동안의 사회적 지지의 틀을 제시해주는 'social convoy model' (Kahn & Antonucci, 1980)을 만들었다.

'convoy' 모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는 동심원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쓰게되며, 여러 개의 동심원은 사회적 관계망이 된다. 'convoy' 모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애착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에 대한 그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가족과 같이 한 개인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역할지위에 의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장 안쪽의 원인 '속 원'에 쓰여지며, 이들은 개인에게 비교적 높은 지지를 제공한다.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나 교사와 같이 정서적으로나 역할지위상 개인과 덜 가까운 사람들은 좀더 바깥쪽 원인 '바깥 원'에 쓰여지며, '속 원'에 쓰여진 사람보다 더 적은 지지를 제공한다(Levitt, 1993).

'convoy' 모델은 애착에 대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애착관계는 유아에게 '안전감의 기초'(secure base)를 제공하며, 안전감으로부터 기초적인 능력이 발달한다(Ainsworth, 1989). 'convoy'는 유아기의 애착대상을 중심으로 정서적으로나 역할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환경속의 타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convoy'의 구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가운데 원'과 '바깥 원'과 같은 주변의 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청소년기에는 이후 성인기

와 같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보다 관계망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크기가 커지며, 친구가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한다(Levitt, Weber, & Guacci, in press; Levitt, 1993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convoy'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지지 제공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일생을 통해 어떠한 일관성을 갖게 되는지를 제시해 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변화와 일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6세에서 9세 사이에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Feiring & Lewis, 1991a, 1991b)이며, 10세 때에는 친척의 지지가 더 늘어난다(Levitt, 1993). 또한 11세에서 14세 때에는 아직 부모가 또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하지만 이 시기가 또래의 지지가 증가하는 시기(Furman & Buhrmester, 1992)이며, 또래의 비율은 13세에서 큰 연령차이가 나타나게 된다(Feiring & Lewis, 1991a, 1991b).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8세), 5학년(11세), 중학교 2학년(14세)으로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아동과 가장의 직업이 주로 농업인 농촌 지역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179명, 초등학교 5학년 201명, 중학교 2학년이 276명으로 모두 656명이다. 남아는 316명이고 여아는 340명이며, 농촌의 아동은 263명이고, 도시의 아동은 393명이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Kahn과 Antonucci(1980)에 의해 제작된 'social convoy model' 을 연구자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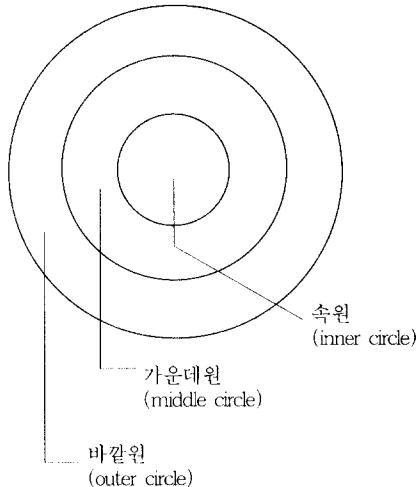


그림 1) 'social convoy model'의 구조적 측면을 위한 척도

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ocial convoy model'은 구조적 측면(structure)과 기능적 측면(func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적 측면의 척도를 이해를 돋기 위해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응답자는 삼중의 동심원 중 제일 안쪽의 원인 '속 원'에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 '속 원' 보다는 좀더 바깥쪽에 있는 '가운데 원'에는 '속 원'에 쓴 사람 보다는 덜 가깝고, 덜 중요한 사람,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 가장 바깥쪽 원인 '바깥 원'에는 '가운데 원'에 쓴 사람 보다는 덜 가깝고, 덜 중요한 사람,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에는 모두 각기 다른 사람을 써야 하며, '속 원'에 쓴 사람을 '가운데 원'이나 '바깥 원'에 다시 써서는 안된다. 구조적 측면의 크기는 전체 관계망에 쓴 사람의 수로써 측정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응답자가 6문항(누구와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지, 누가 힘든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지, 누가 아플때 돌보아주는지, 누가 숙제를 도와주는지, 누가 재미있게 놀아주는지, 누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지)의 사회적 지지 기능에 답한 사람의 총수로써 측정이 된다. 응답자는 6문항의 사회적 지지 기능에 관한 문제에 답할때 반드시 '속 원'이나 '가운데 원' 또는 '바깥 원'에 쓴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써야 하며, 모두 원 안에 쓴 사람 중에서 택해서 써야 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선 구조적 측면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법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연구대상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초등학교 2학년과 가장 나이가 많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관계수가 .40이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며, .75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Fleiss, 1981).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상관계수는 전체 .65이며, 초등학교 2학년은 .76, 중학교 2학년은 .76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대한 타당도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아동학 전공자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연구 절차

본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6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 30명과 중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한 총 5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조사는 1996년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나 교사가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응답하게 하였으며,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50분이었다. 조사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680부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된 24부를 제외한 총 656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를 알아보고, 구조적 측면을 관계범주별로 살펴 보기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를 통제하고 연령과 성별, 연령과 지역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를 통제한 이유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은 응답자가 6문항의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관한 문항에 답한 사람의 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때 응답자는 반드시 구조적 측면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에 쓴 사람 중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이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를 통제하였다.

셋째, 각각의 관계범주에 의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 연령과 지역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범주는 부모, 형제/친척, 친구, 이웃의 4개로 구분하였다.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에는 조부모가 포함되었고, 이웃의 관계범주에는 부모, 형제/친척, 친구를 제외한 그 밖의 사람들(교사, 이웃주민, 종교지도자 등)이 포함된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기능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를 제시한 *(표 1)*를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총크기는 13.81이며, '가운데 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바깥 원'과 '속 원' 순으로 크기가 작아진다. 구조

<표 1>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크기

(N=656)

관계범주 원의 위치	전체 M(SD)	부모 M(SD)	형제/친척 M(SD)	친구 M(SD)	이웃 M(SD)
총 크기	13.81(7.12)	1.91(.35)	4.75(3.85)	5.71(4.65)	1.44(2.33)
속 원	4.12(2.82)	1.79(.52)	1.35(1.64)	.68(1.49)	.30 (.84)
가운데 원	5.03(3.78)	.10(.37)	2.62(3.06)	2.18(2.74)	.44(1.16)
바깥 원	4.66(3.73)	.02(.15)	1.09(1.91)	2.85(3.40)	.70(1.40)

적 측면을 관계범주별로 보았을 때는 '속 원' 안에는 부모를 가장 많이 쓰며, '가운데 원' 안에는 형제/친척을, '바깥 원'에는 친구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연구를 살펴보면, 역할지위에 의해 한 개인과 정서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주로 '속 원'에 쓰여지며, 이들은 비교적 높은 지지를 제공한다.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나 교사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나 역할지위상 덜 가까운 사람들은 '바깥 원'에 쓰여지며, '속 원'에 쓰여진 사람보다는 더 적은 지지를 제공한다(Levitt, 1993).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의 양을 제시한 <표 2>를 살펴보면 총 지지의 양은 평균 15.24이다. 총지지의 양이 구조적 크기의 총크기 13.81 보다 큰 이유는 구조적 측면에 관한 척도에는 같은 사람을 반복하여 쓸 수 없는 반면, 기능적 측면의 측정을 위한 척도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중복하여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범주에 따른 총지지량은 친구(M=6.23)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총지지량도(5.37) 형제/친척(2.91), 이웃(0.72)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 고

등학교 1학년, 대학교 1, 2학년의 모든 연령집단을 통해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지각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윤혜정(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배경변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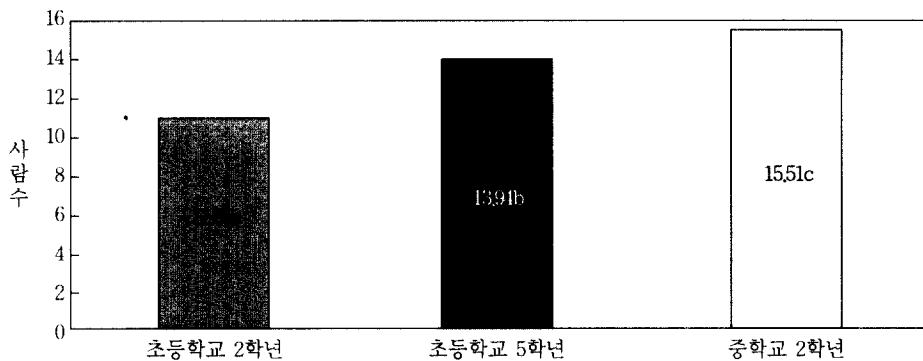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22.82$, $P<.001$). 총크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접하는 환경이 넓어짐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속 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가운데 원'과 '바깥 원'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운데 원'과 '바깥 원'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커졌다. 추후검증결과 '가운데 원'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3.53), 5학년(5.08), 중학교 2학년(5.97)의 모든 집단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4.37$, $P<.001$), '바깥 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3.76)과 중학교 2학년(5.28)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9.28$, $P<.001$). 총크기를 연령에 따라 보았을 때 '속 원'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속 원'에는 주

<표 2>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

(N=656)

구 분	M(SD)
총 지지의 양	15.24(9.32)
관계범주에 따른 지지	
부 모	5.37(2.90)
형제/친척	2.91(3.35)
친 구	6.23(7.58)
이 웃	.72(1.71)



<그림 2> 연령에 의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

주) a, b, c는 Scheffé 검증결과치임.

로 부모,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을 4개의 관계범주별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알아 보았을 때 부모 관계범주는 '속 원' ($F=6.60$, $P<.001$)과 '가운데 원' ($F=4.0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속 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가운데 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는 '속 원'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부모를 더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모 관계범주의 경우 중학교 2학년(1.87)이 초등학교 2학년(1.69)보다 '속 원'에 부모를 더 많이 쓰며, '가운데 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16)이 중학교 2학년(.06)보다 부모를 많이 썼다. 다시 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속 원'에 양친 모두를 쓰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관계범주에 대한 추후검증결과는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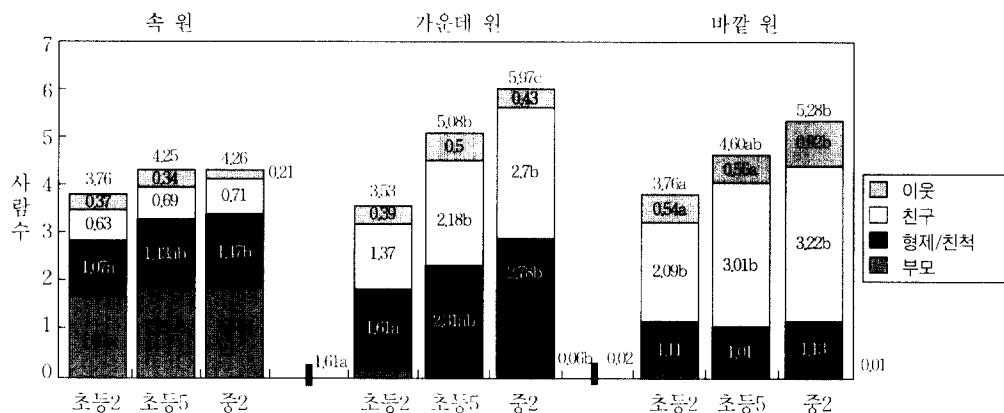
형제/친척의 관계범주는 '속 원' ($F=3.59$, $P<.05$)과 '가운데 원' ($F=8.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증가하였다.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의 경우 '속 원'에 초등학교 2학년(1.07)보다 중학교 2학년(1.47)이 형제/친척을 더 많이 썼으며, '가운데 원'에서도 '속 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1.61)보다 중학교 2학년

(2.78)이 더 많은 수의 형제/친척을 썼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척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에 대한 추후검증결과는 모두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간에 차이가 있었다.

친구 관계범주는 '가운데 원' ($F=13.36$, $P<.001$)과 '바깥 원' ($F=6.4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커졌다. 추후검증결과 초등학교 2학년(1.37)이 초등학교 5학년(2.18), 중학교 2학년(2.70)과 차이가 있었다. 즉, 친구 관계범주는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르러 더욱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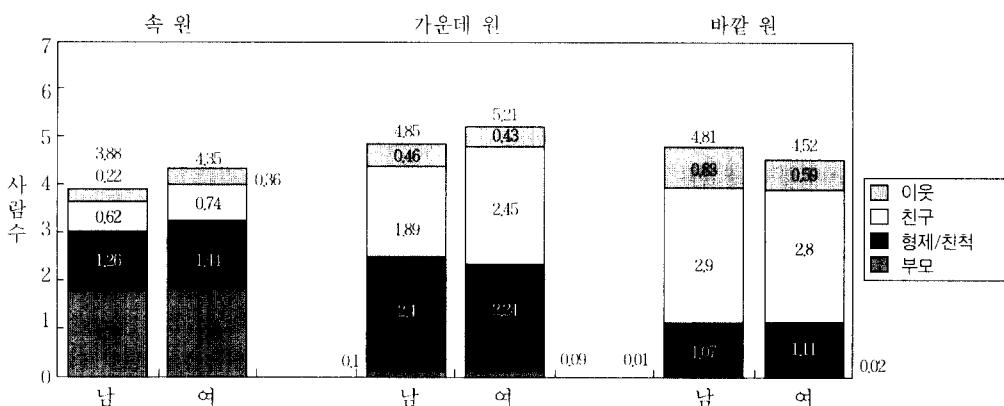
이웃 관계범주는 '바깥 원' ($F=5.56$, $P<.001$)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커졌다. 추후검증결과 초등학교 2학년(.54)이 초등학교 5학년(.56), 중학교 2학년(.92)과 차이가 있었다.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운데 원'과 '바깥 원'의 크기가 커지며, 친척, 친구나 이웃의 관계범주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윤혜정(1992)의 연구에서 형제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높게 지각되며, 이는 청소년기를 통해 친구나 형제와 같은 동년배와 상호작



〈그림 3〉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크기

주) a, b, c는 Scheffé 검증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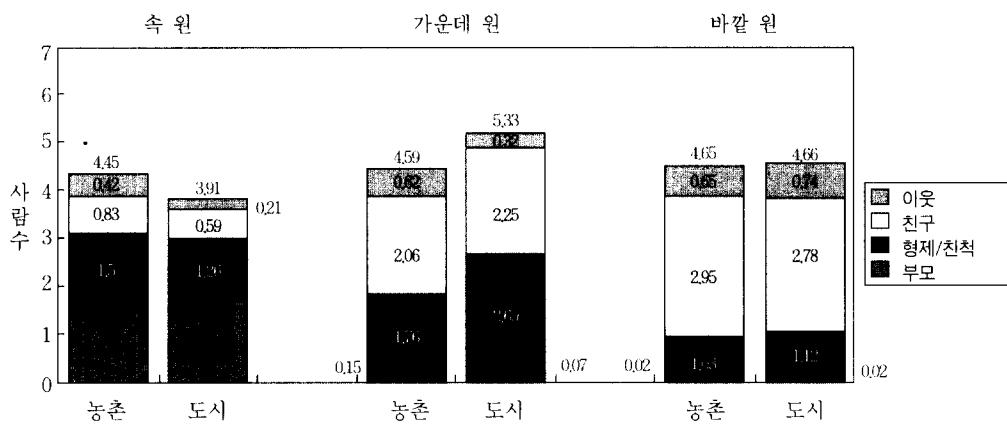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크기

용이 증가하여 애인, 부부, 직장동료등과 같은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성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원의 총크기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속 원'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 = -2.11$, $P < .05$), 여아($M = 4.35$)가 남아($M = 3.88$)보다 '속 원'에 더 많은 사람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가운데 원'의 크기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주위사람들과 의존적이며, 애착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관계범주별 차이의 경우 부모, 형제/친척의 관계범주는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



<그림 5> 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크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동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를 ‘속 원’에, 형제/친척을 ‘속 원’과 ‘가운데 원’에 주로 쓰고 있다.

친구 관계범주는 ‘가운데 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 = -2.65, P < .05$), 여아($M = 2.45$)가 남아($M = 1.89$)보다 ‘가운데 원’에 친구를 더 많이 썼다. 이웃의 관계범주는 ‘속 원’($t = -2.14, P < .05$)과 ‘바깥 원’($t = 2.23,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속 원’에서는 여아($M = .36$)가 남아($M = .22$)보다 이웃을 더 많이 썼지만, ‘바깥 원’에서는 오히려 남아($M = .83$)가 여아($M = .59$)보다 더 많은 이웃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남아와 비교해 볼 때 ‘속 원’에서는 남아보다 이웃을 더 많이 쓰며, ‘가운데 원’에서는 남아보다 친구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총크기의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속 원’의 총크기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여아가 남아보다 ‘속 원’에 이웃을 더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주위사람들로부터 격려나 인정 등 자존감 지지 행위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김명숙(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속 원’, ‘가운데 원’, ‘바깥 원’으로 나누어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속 원’($t = 2.21, P < .05$)과 ‘가운데 원’($t = -2.47,$

$P < .05$)에서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농촌의 아동은(4.45) 도시의 아동(3.91)보다 ‘속 원’에 더 많은 사람을 쓰며, 반대로 도시의 아동은(5.33) 농촌의 아동(4.59)보다 ‘가운데 원’에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속 원’에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더 많은 이웃을 쓰고, ‘가운데 원’에는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더 많은 형제/친척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에 따라 4개의 관계범주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 관계범주는 ‘속 원’($t = -3.76, P < .01$)과 ‘가운데 원’($t = 2.59,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속 원’에서는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부모 모두를 쓰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운데 원’에서는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부모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는 농촌 아동의 경우 ‘속 원’과 ‘가운데 원’에 부모를 각각 한 명씩 쓰는 경향이 도시 아동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부모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의 경우 ‘가운데 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 = -4.22, P < .01$) 도시의 아동이 농촌의 아동보다 형제/친척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에 형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시 아동의 경우 농촌 아동보다

가정 밖의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형제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웃의 관계범주는 '속 원' ($t=2.82$, $P<.01$)과 '가운데 원' ($t=2.90$,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속 원'과 '가운데 원' 모두 농촌의 아동이 도시의 아동보다 이웃을 더 많이 썼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아동이 도시의 아동보다 이웃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배경변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F=8.28$, $P<.001$)과 성별($F=8.20$, $P<.01$)의 주효과가 모두 있었으며, 상호작용효과($F=4.60$, $P<.05$)도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지지량이 증가하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총지지량이 높았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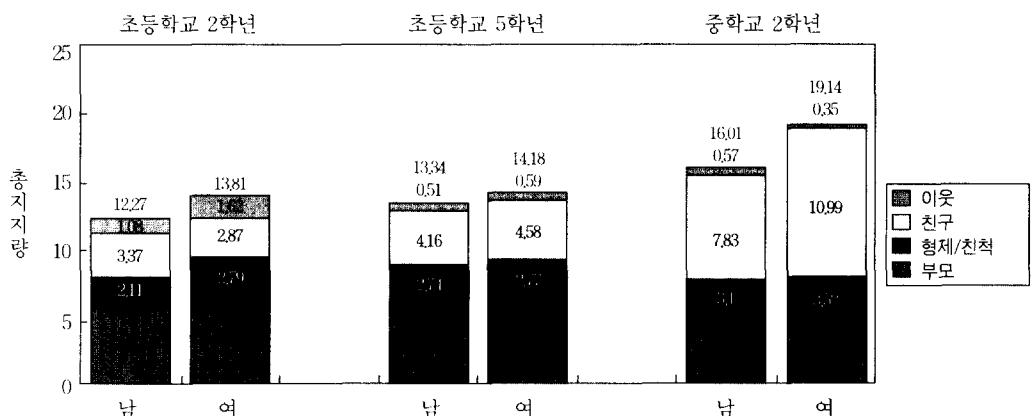
그럼에서 보면 총지지량은 초등학교 2학년 남아가 가장 낮고, 중학교 2학년 여아가 가장 높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여아일때 총지지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총지지량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14.18)에서 중학교 2학년(19.14)사이에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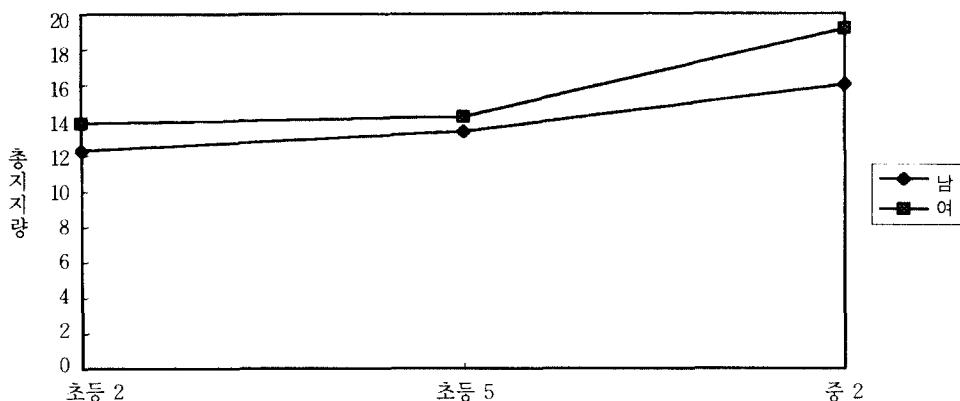
남아의 경우 총지지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여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13.34)에서 중학교 2학년(16.01)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여 모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총지지량이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아동의 생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부모, 형제/친척, 친구, 이웃의 관계범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부모 관계범주에서는 연령에 의한 주효과($F=39.97$, $P<.001$)만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총지지량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가족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한 김명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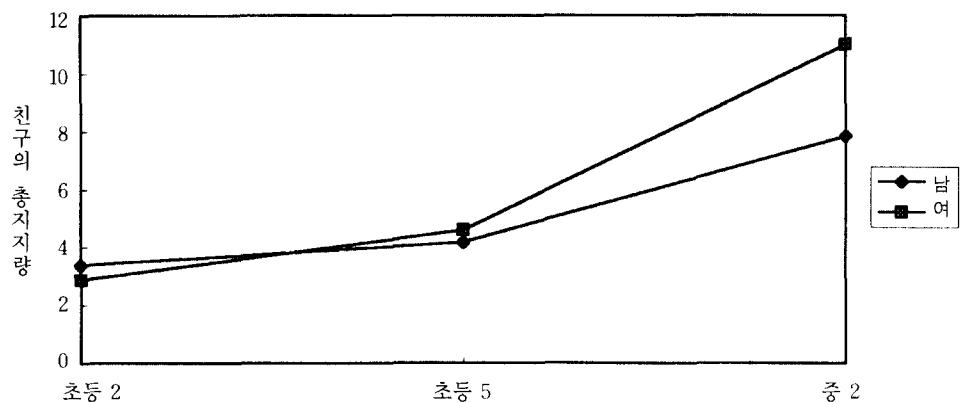
친구의 관계범주의 경우 연령($F=39.92$, $P<.001$)과 성별($F=5.61$, $P<.05$) 모두 주효과가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로부터의 총지지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하여 형제와 친구



<그림 6>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의 지지량



<그림 7>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8> 기능적 측면의 친구관계범주에 대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로부터 받는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이영자, 1994)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로부터 받는 총지지량이 높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며, 그들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더 많은 지지를 받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F=8.63$, $P<.001$)도 있었다.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8>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초등학교 2학년때에는 남학생 (3.37)이 여학생(2.87)보다 친구에 의한 총지지량이 높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여학생(4.58)이 남학생

(4.16)보다 친구에 의한 총지지량이 높다. 남, 여 모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친구에 의한 총지지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여학생의 경우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며(윤혜정, 1992), 성별에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였다(최용주, 1992)와 일치한다. 즉, 여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학생보다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초등학교 5학년(4.58)에서 중학교 2학년(10.99)사이에 친구와의 관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웃의 관계범주에서는 학년의 주효과만 ($F = 26.29, P < .001$)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웃으로부터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지지량이 증가하며,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감소하는 대신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이 시기가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지지량을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F = 9.67, P < .001$)과 지역 ($F = 10.26, P < .01$)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연령과 지역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총지지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총지지량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4개의 관계범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부모 관계범주에서는 연령에 의한 주효과 ($F = 40.60, P < .001$)만이 나타났으며, 지역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과 지역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F = 3.44, P < .05$)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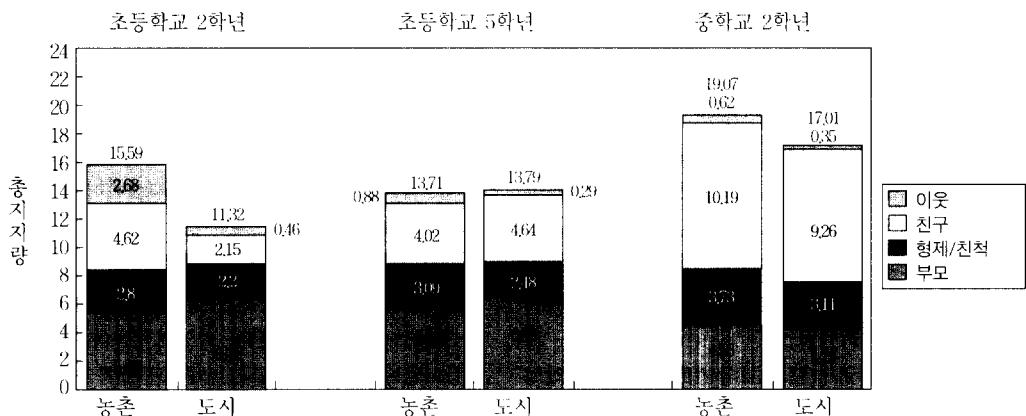
있었다. 부모 관계범주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나 5학년보다 작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지지가 작아지는 것이다.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는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부모에 의한 총지지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는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부모에 의한 총지지량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사이에 부모의 총지지량이 농촌과 도시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아동의 경우 농촌 아동보다 부모의 지지가 더 크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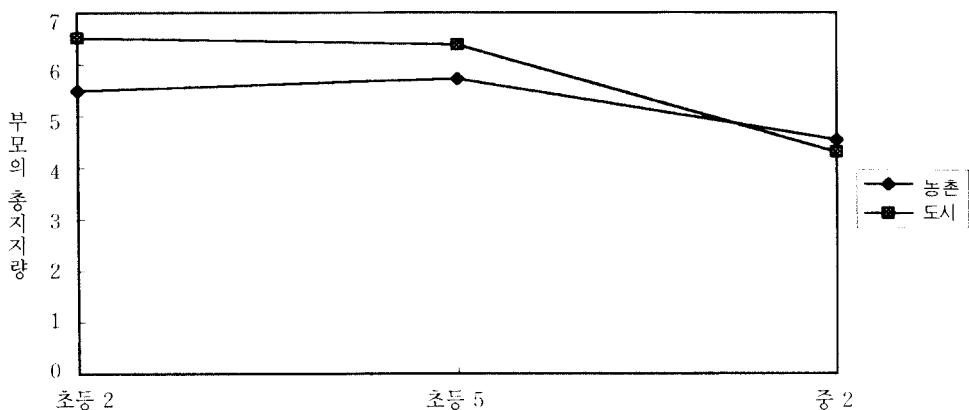
형제/친척의 관계범주에서는 지역에 의한 주효과 ($F = 5.62, P < .05$)만이 나타나며,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형제/친척에 의한 총지지량이 커졌다. 즉,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형제/친척으로부터 받는 지지량이 큼을 알 수 있다.

친구 관계범주의 경우 연령에 의한 주효과 ($F = 41.18, P < .001$)만이 나타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에 의한 지지량이 증가한다. 이는 농촌 아동이나 도시 아동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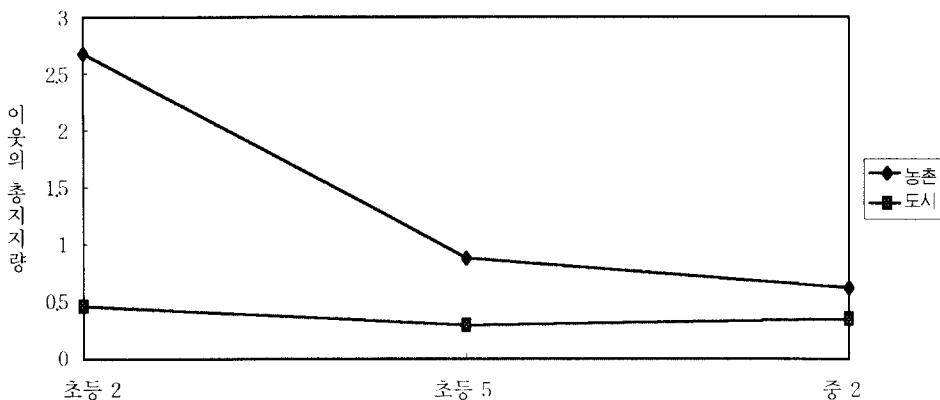
이웃의 관계범주에서는 연령 ($F = 29.82, P < .001$)과 지역에 의한 주효과가 모두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웃의 지지량이 감소하였고, 농촌 아동이



<그림 9> 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의 지지량



<그림 10> 기능적 측면의 부모관계범주에 대한 지역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1> 기능적 측면의 이웃관계범주에 대한 지역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도시 아동보다 이웃으로부터의 지지량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이웃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아동보다 이웃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연령과 지역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있었는데 이는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모든 연령에서 이웃에 의한 총지지량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웃에 의한

총지지량이 감소하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2.68)과 초등학교 5학년(1.88) 사이에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도시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1.46)과 5학년(1.29) 사이에 이웃에 의한 총지지량이 감소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1.29)과 중학교 2학년(1.35) 사이에 다시 증가함을 보여준다.

앞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총지지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시 아동보다 농촌 아동이 더 높았다.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지지를 덜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으로부

터의 지지량은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더 높았고 이는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더욱 그러했는데, 농촌 아동이 이웃과 단절된 도시 아동보다 이웃과 더 가족처럼 생활하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의 변화와 일관성을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ocial convoy model'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촌과 도시 아동을 비교하여 아동이 접한 환경의 차이가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와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동은 부모를 '속 원'에 주로 쓰며, 형제/친척은 '가운데 원'에, 친구는 '바깥 원'에 쓰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크기가 커졌다. '속 원'을 제외한 '가운데 원'과 '바깥 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커졌다. 관계범주별로 연령에 따라 보았을 때 부모, 형제/친척의 경우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친구의 경우 '가운데 원'과 '바깥 원'에서, 이웃의 경우 '바깥 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에서 '속 원'에서만 여아의 '속 원'의 크기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커졌다. 성별에 따른 관계범주를 살펴보면 친구 관계범주는 '가운데 원'에서, 이웃 관계범주는 '가운데 원'과 '바깥 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구조적 측면에 따른 총크기는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농촌 아동의 경우 '속 원'의 총크기가 도시 아동보다 크며, 도시 아동의 경우 '가운데 원'

의 총크기가 농촌 아동보다 커졌다. 관계범주별로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 관계범주는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형제/친척 관계범주는 '가운데 원'에서, 이웃 관계범주는 '속 원'과 '가운데 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첫번째와 두번째 결과를 살펴보면, 한 개인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역할지위에 의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은 주로 '속 원'에 쓰여지고, 비교적 높은 지지를 제공하며, 친척, 친구 또는 비친척과 같이 정서적으로나 역할지위상 덜 가까운 사람들은 좀더 '바깥 원'에 쓰여지며, 더 적은 지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부모,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고, 친구 관계에서 성별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도 친구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녀는 소년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지지를 느낀다는 연구결과(Buhrmester & Furman, 1987; 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와 일치하지만,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더 화장적인 또래나 성인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Berndt, 1981; Bryant, 1985).

기능적 측면을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과 지역에 의한 주효과만 나타났다. 관계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 의한 주효과는 부모, 친구, 이웃의 관계범주에서 나타났으며, 지역에 의한 주효과는 형제/친척, 이웃의 관계범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는 부모와 이웃의 관계범주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유형점수는 감소됨을 보고한 반면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제공받는 지지점수는 청소년 초기와 후기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Furman과 Buhrmester(1985, 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 모두 그 크기가 커

지며, 지지 제공자도 부모에서 형제,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 확대된다. 즉, 아동기에는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도 지지량이 줄어들기는 하나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지 제공자의 지지량은 변화하지만, 부모와 형제/친척과 같은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며, 필요할 요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그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특별히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면접을 통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2) 김수민. 사회조직망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 3) 윤혜정.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4) 이영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5) 최용주.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6) 한종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 7) Ainsworth, M. D. S.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1989, 709-716.
- 8) Akiyama, A., Antonucci, T. C., & Campbell, R. Rules of support exchange among two generations of Japanese and American women. In J. Sokolovsky(Ed.), *Growing old in different societies*. Belmont, CA : Wadsworth, 1990.
- 9) Bryant, B. K. The neighborhood walk: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3, serial No. 210), 1985.
- 10) Cobb, S.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1976, 300-314.
- 11) Cochran, M. M., & Brassard, J. A. Child development, 50, 1979, 601-616.
- 12) Cohen, S., & 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1985, 310-317.
- 13) Feiring, C., & Lewis, M.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 Gender differences and the relation to school competence. *Sex Roles*, 25, 1991a, 237-253.
- 14) Feiring, C., & Lewis, M.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 Sex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Sex Roles*, 24, 1991b, 489-509.
- 15) Fleiss, J. S. *Statistical methods for rates and proportions* (2nd ed.), New York : Wiley, 1981.
- 16) Furman, W., & Buhrmester, D.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992, 103-115.
- 17) Hunter, F. T. Adolescents' perceptions of discussions with parents and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85, 433-440.
- 18) Hunter, F. T., & Youniss, J.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82, 806-811.
- 19) Kahn, R. L., & Antonucci, T. C.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 support". In Paul B. Baltes & Orville G. Brim, Jr.(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s*(pp. 253-286)N. Y. : Academic Press, 1980.
- 20) Levitt, M. J., Guacci, N., & Levitt, J. L.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Structure and fun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1993, 811-818.
- 21) Lewis, M., & Feiring, C. The child's social network : Social object, social functions, and their relationship.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child and its family*(pp. 9-27). New York : Plenum, 1979.
- 22) Lewis, M., Feiring, C., & Kotsonis, M. The social network of the young child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pp.129-160). New York : Plenum, 1984.
- 23) Nestmann, F., & Hurrelmann, K. Child and adolescent research as a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social support theory,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 And vice versa. In Nestmann, F., & Hurrelmann, K.(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Walter de Gruyter · Berlin · New York, 1994.